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1)

북클럽 팀명	공여모					
일시/장소	일시	2026.04.08. 18:00~20:00			장소	도현글로벌스쿨 강의실
참여 인원	학과	*	학번	*	이름	류*연
	학과	*	학번	*	이름	안*연
	학과	*	학번	*	이름	유*주
	학과	*	학번	*	이름	정*민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유*주 (서명)	
도서	도서명	향연			저자	플라톤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16	번역자	강철웅
오늘의 북클럽 주제	플라톤의 『향연』을 통한 사랑의 본질 탐구 및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사랑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이번 1회차 미팅에서는 팀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북클럽 활동을 시작했다. 단순한 감정 그 자체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응하려는 태도 역시 사랑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함께 플라톤의 『향연』을 읽으며 고대 철학자들이 정의한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고, 사랑이 인간의 삶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p>						
<b>활동 결과</b>						
<p><b>1.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란?</b></p> <p>안*연: 저는 사랑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 고통까지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도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p> <p>유*주: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삶의 총체적 기반이 되는 존재론적 실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자극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때만 그걸 인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곁에 있어서 그 가치를 망각하고 살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은은한 동력이 없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그 무엇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정*민: 저는 사랑이란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도 성장하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이나 배려를 배우게 되고,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p> <p>류*연: 저는 그리스어에서 '칼론'이 '아름다움'과 '훌륭함(탁월함)' 모두로 번역된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처럼 탁월하고 훌륭한 대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동경하여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게는 가장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나에게 걸핍된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된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p>이처럼 팀원들은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지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느꼈다.</p>						
<p><b>2.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b></p>						

이후 플라톤의 『향연』을 읽으며 고대 철학자들이 정의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향연』은 소크라테스 당대의 여러 인물이 사랑, 즉 에로스(Eros)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대화 형식의 철학 고전으로, 작품 속 인물들은 전부 소크라테스 당시 실존했던 인물들로 그들은 '에로스' 신에 대한 찬양을 통해 사랑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힌다. 그들의 주장에는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힘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류: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의 입을 빌려 아가톤의 수사학적 찬미를 전박적으로 반박하는 논증 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디오티마에 따르면 에로스는 그 자체로 아름답거나 선한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결핍된 것(미와 선)을 갈망하는 중간자적 존재예요. 즉, 사랑은 본질적으로 결핍에서 기인하며, 최종적으로는 '좋은 것이 자신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특히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이 영원성을 획득하기 위해 육체와 영혼을 통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낳고 생산하려 한다는 '아름다움 속에서의 출산'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플라톤은 이 대화 형식을 빌려서 개별적인 아름다운 신체에 대한 매혹에서 시작해, 제도와 학문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신성한 '미의 이데아' 자체를 관조하고 추구하는 철학자의 사랑(philosophy) 개념을 나타내고자 한 것 같아요.

안: 저는 소크라테스가 '사랑에 대한 개념은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외적인 매력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과 삶의 태도까지 바라보게 만든다는 그의 말은,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처음에는 대부분 외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끼지만 그 사람을 더 알아갈수록 내면이나 삶의 방식에까지 사랑을 느끼게 되는 상황과 잘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유: 저는 피이드로스가 발표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누구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오로지 도덕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만 증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피이드로스는 이러한 사랑에 기반한 수치심과 명예심이 결국 국가를 가장 완벽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사랑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어떻게 사회적 도덕성이나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인간을 가장 숭고한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저는 아리스토폴라네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였다가 둘로 나뉘어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신화적 설명이 흥미로웠는데, 사랑이란 결국 분리된 존재가 서로에게서 완전함을 찾으려는 근원적인 갈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반쪽'이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을 수 있다는 의문도 들어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3. 사랑이 인간의 삶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유: 저는 방금 인상깊은 부분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향연』에서 피이드로스가 말한 부분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사랑은 우리 인간을 더 도덕적이고 성숙하게 만드는 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저도 사랑이 인간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말에 공감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생기고, 나보다도 상대의 입장을 더 생각할 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애를 시작할 때는 보통 책임감과 이 사람의 자체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혼자 살아갈 때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정: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사랑이 꼭 인간을 좋은 방향으로만 성장시키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대에게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다가 스스로를 희생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류: 저도 방금 그 말씀 이해합니다. 실제로 사랑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인간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상처를 받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해 보는 경험 자체가 결국 타인의 감정과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 맞아요. 결국 사랑은 마냥 좋고 행복한 감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고통이나 불안까지 마주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유: 그래서 저도 사랑이란 삶의 '태도'와도 가깝다고 느껴요. 순간적인 호감은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상대를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오래 남는 것 같거든요.

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건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와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보니 감정이나 상황을 완전히 알 수는 없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류: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미래에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할 때도 단순히 증상이나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결국 『향연』에서 말하는 사랑도 단순한 감정보다는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4. 1회차 북클럽 활동 결론

이번 1회차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향연』 속 철학자들이 사랑을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으로 설명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랑이 인간의 삶과 성장, 나아가는 공동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과 때로는 고통까지도 이해하려는 노력과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마지막에 팀원들은 이러한 태도가 미래 의료인에게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환자를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 활동 자료

(토론 자료 사진)

### 『향연』이란?

BC 416년, 아가톤의 비극 초연 축하 연회.  
소크라테스와 당대 아테네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로스 (Eros) 신에 대한 전망 연설을 돌아가며 펼친다.  
대화 형식의 철학 고전 — 플라톤 저, 강철웅 역 (문학동네, 2016)

#### 오늘의 핵심 질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인가, 아니면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힘인가?  
그리고 미래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향한 돌봄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는가?

#### 연설 순서

1. **파이드로스**  
사랑 — 덕과 용기의 원천
2. **파우사니아스**  
하늘의 사랑 vs 세속의 사랑
3. **헤라클리티코스**  
우주적 조화로서의 에로스
4. **아리스토파네스**  
번역을 찾는 인간의 본능
5. **아가톤**  
미와 덕의 신 에로스
6. **소크라테스**  
에로스 = 아름다움을 향한 상승
- (7.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 자신이 에로스다

### 여섯 목소리, 하나의 주제

— 에로스를 바라보는 여섯 가지 사진

<b>× 파이드로스</b> 덕의 용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인간은 가장 숭고해진다	<b>☐ 파우사니아스</b> 두 종류의 사랑 하늘의 아프로디테 vs 세속의 아프로디테	<b>⊖ 헤라클리티코스</b> 우주적 조화 에로스는 의술에도, 음악에도 흐른다
<b>⊕ 아리스토파네스</b> 번역 찾기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한다	<b>+ 아가톤</b> 비애 행복 에로스는 가장 쉽고 아름다운 신이다	<b>△ 소크라테스</b> 상승적 초월 목욕의 아름다움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2)

북클럽 팀명	공여모					
일시/장소	일시	2026.04.10. 18:00~20:00			장소	도서관
참여 인원	학과	*	학번	*	이름	류*연
	학과	*	학번	*	이름	안*연
	학과	*	학번	*	이름	유*주
	학과	*	학번	*	이름	정*민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유*주 (서명)	
도서	도서명	향연			저자	플라톤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연도	2016	번역자	강철웅
오늘의 북클럽 주제	『향연』을 통해 생각해본 환자의 고통과 의료인의 역할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이번 2회차 미팅에서는 1회차에서 『향연』 속 사랑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을 깊이 이해하려는 사랑의 태도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환자들이 질병을 앓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안, 상실에 대해 의료인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았다.</p> <p>나아가 이번 주 활동 주제와 관련한 TED 강연인 「The Edge of Compassion」을 함께 시청하며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감 피로’와 감정적 소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확장해보았다. 이후 팀원들은 이번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PPT 자료를 활용해 각자의 생각과 느낀 점을 정리·공유하며, 공감과 객관성 사이에서 의료인이 어떤 균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p>						
<b>활동 결과</b>						
<p><b>1. 『향연』 속 사랑의 의미 다시 돌아보기</b></p> <p>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향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작품 속 학자들이 사랑이란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랑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갈망하는 감정을 넘어서, 타인의 감정과 삶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상대방의 불안과 고통까지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는 과정 역시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p> <p>특히,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러한 태도가 의료인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고를 확장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각자의 삶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고민해보았다.</p>						
<p><b>2. 의료 현장에서의 사랑</b></p> <p>이렇게 이야기 나눈 『향연』 속 사랑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p>						

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향연』을 읽고 파이드로스 학자의 논리에 가장 동의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누구나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고, 가장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한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의료인에게 환자 역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의료인은 자신의 방관이나 나태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환자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 가장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 환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료인이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의료인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방금 그 말을 들으면서 의료인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은 환자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된 직업이다 보니, 그들의 작은 판단이나 행동이 환자에게 굉장히 크거나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단순한 치료, 업무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인류애와 환자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의료인이 환자를 너무 '사랑의 대상'처럼 여기게 되면 오히려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하고 정도 이상으로 몰입하게 되면, 정작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의료인에게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맞지만, 결국 의료인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류: 저도 \*\* 학우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환자의 고통에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침잠하면 의료인으로서 정작 필요한 냉철한 의학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향연』에서 나온 사랑의 단계를 대입해 본다면, 환자의 개별적인 감정이나 안타까운 상황에만 머무르는 것은 일차적인 단계의 에로스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의료인의 에로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감정적 휩쓸림을 제어하고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라는 의학의 본질을 쫓는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환자를 위한 전문적 사랑의 방식인 거죠.

### 3. 생각 확장하기

『향연』 속에서 사랑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대하려는 태도와 연결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의료인의 공감과 감정 소진과 관련해 다룬 TED 강연 'The Edge of Compassion'을 함께 시청하였다. 이 강연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직업군일수록 감정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는 '공감 피로(compassion fatigue)'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의료인이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균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류: 저는 이 강연을 보면서, 『향연』에서 에로스가 풍요와 결핍 사이의 중간자라고 했던 디오티마의 설명이 떠올랐어요. 의료인 역시 모든 환자의 고통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전능한 존재처럼 여기고 모든 환자의 감정을 전부 짚어지려 한다면 결국 공감 피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감정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환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인에게 필요한 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균형 잡힌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랑이 단순한 욕망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정신적인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는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지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친절과 공감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환자를 오래도록 진심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향한 공감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역시 지속적인 공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저는 두 의견을 들으면서 결국 의료인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공감'보다는 환자를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고통을 전부 같은 방식으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그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료인은 환자를 단순히 병명이나 증상으로 바라

보지 않고, 각자의 삶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 맞아요. 저도 이번 토론을 하면서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의료인이 환자의 고통을 완벽하게 대신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연』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4. 이번 2회차 북클럽 활동 결과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향연』에서 말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애착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그 과정에 가깝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처음에는 사랑을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태도로 이해했지만, 토론이 이어질수록 무조건적인 감정 이입만으로는 건강한 사랑이나 지속적인 공감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료인 역시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 모두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다. 『향연』 속에서 디오티마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의료인 또한 환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팀원들은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을 쏟아붓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을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 그의 삶과 고통을 존중하려는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할 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 활동 자료

##### 우리가 내린 사랑에 대한 정의

류: 훌륭한 대상을 보고 동경하며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

유: 삶의 기반이 되는 존재론적 실체

정: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경험

##### 『향연』 속 학자들의 에로스에 대한 논리

파이드로스: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 중 아름다움의 근원이며, 수치심을 일깨우고 신적인 용기를 부여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파우시니우스: 지상의 에로스, 천상의 에로스 총 2종류의 에로스가 존재한다.

지상의 에로스는 세속적인 사랑이고 천상의 에로스는 진정한 사랑이다.

에릭시마코스: 만물에는 두 가지의 에로스가 대립하며 조화를 이룬다.

##### 『향연』 속 학자들의 에로스에 대한 논리

아리스토파네스: 인간의 성별은 본디 남성, 여성, 이 둘을 합친 양성을 가졌으나 신의 노여움으로 인해 현재는 남성, 여성을 가진다. 이성을 갈망하는 건 한 몸이었던 과거에 대한 끌림 때문이다.

아가톤: 에로스는 가장 행복한 신이며,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추한 것을 멀리하며 덕을 아는 신이다.

##### 의료 현장 내의 사랑

유: 환자는 사랑의 대상으로, 의료인은 방관이나 나태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도덕적 명예를 구한다.

안: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즉 책임감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인류애를 바탕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의료 현장 내의 사랑

정: 너무 '사랑'의 대상으로만 대할 시 객관성 잃을 위험이 있다.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을 **균형**이 필요하다.

류: 환자의 안타까운 상황에만 머무르는 건 일차적 단계의 에로스이고, **진정한 의료인의 에로스**는 정확하며 최선의 치료라는 **의학적 본질**을 좇는 태도이다.

## TED\_The Edge of Compassion

### 공감 피로

: 타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접해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 이상 돌보거나 공감할 수 없게 된 상태.

친절함과 공감은 고귀하지만, 제한 없는 공감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 TED\_The Edge of Compassion

류: 디오티마에 따르면 에로스는 풍요와 결핍 사이의 중간자이다. 의료인도 공감 피로를 피하려면 **중간자적 태도**를 지켜야 한다.

유: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사랑 논리를 열정적으로 따를수록 공감 피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의료인이 오래도록 공감 태도를 지속하려면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 TED\_The Edge of Compassion

안: 의료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완벽한 공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감**이다. 환자를 각자의 삶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 환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향연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 연결된다.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3)

북클럽 팀명	공여모					
일시/장소	일시	2026.04.15 18:00~20:00			장소	도헌글로벌스쿨 강의실
참여 인원	학과	*	학번	*	이름	류*연
	학과	*	학번	*	이름	안*연
	학과	*	학번	*	이름	유*주
	학과	*	학번	*	이름	정*민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유*주 (서명)	
도서	도서명	사랑의 기술			저자	에리히 프롬
	출판사	문예출판사	출판연도	2019	번역자	황문수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사랑의 기술』을 통해 생각해본 사랑의 능동성과 의료인의 실천적 태도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이번 활동에서는 앞선 1, 2회차에서 『향연』을 읽고 나눈 사랑의 의미를 바탕으로,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함께 읽으며 사랑이 단순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능동적 실천이라는 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1회차 활동에서는 사랑이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타인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2회차 활동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태도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공감과 객관성 사이에서 의료인이 어떤 균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p> <p>이번 활동에서는 그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사랑을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태도와 능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프롬이 말한 사랑의 네 요소인 보호, 책임, 존중, 지식을 중심으로 각 개념이 의료인의 환자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토의하였다. 팀원들은 각자 책에서 인상 깊었던 개념을 고르고, 그것을 미래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연결해 발표하였다. 이후 "타인을 사랑하는 역량은 훈련될 수 있는가", "환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는 것과 같은가", "의료인은 어떻게 따뜻함과 객관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p>						
<b>활동 결과</b>						
<p><b>1. 『향연』에서 『사랑의 기술』로 넘어가기</b></p> <p>우리는 먼저 지난 활동에서 도출했던 결론을 다시 확인하였다. 『향연』을 읽으며 우리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사랑은 환자의 고통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한 사람의 삶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면서도 전문적인 판단을 잃지 않는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p> <p>『사랑의 기술』은 이러한 논의를 더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로 옮겨주었다. 프롬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오해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관점이 의료인의 공감 문제와 깊이 연결된다고 느꼈다. 환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성격이나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p>						

속 훈련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능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책에서 인상 깊었던 개념

류\*연: 저는 프롬이 사랑의 요소로 말한 보호와 책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책임은 상대의 삶을 대신 짚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응답할 수 있는 태도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의료인에게도 이러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가 병을 겪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무심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도 의료인의 책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고통을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전능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책임감은 환자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연: 저는 존중과 지식이라는 개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프롬은 사랑이 상대를 내 방식대로 소유하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사람답게 존재하도록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환자를 대할 때도 비슷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병명이나 검사 결과를 알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환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주: 저는 사랑이 기술이라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향연』에서는 사랑이 인간을 더 높은 가치로 이끄는 힘으로 설명되었다면, 『사랑의 기술』은 그 힘이 실제 삶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discipline, concentration, patience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바쁘고 지친 상황에서도 환자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계속 점검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 저는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사랑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졌지만,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활동에서 이야기한 공감 피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고통에 계속 공감하려면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환자를 오래도록 진심으로 대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3. 타인을 사랑하는 역량은 훈련될 수 있는가

이후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롬이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한 이유도 사랑이 타고난 감정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감하는 의료인이 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더 나은 의료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연』에서 사랑이 인간을 더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했던 것처럼, 환자를 존중하려는 마음은 의료인 스스로를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저는 사랑이 훈련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감정 노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에게 환자를 사랑하라고만 말하면,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쉽게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은 단순히 더 많이 공감하는 기술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와 한계를 아는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랑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를 존중하면서도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류: 저도 그 점에 공감합니다. 프롬이 말한 사랑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지식이 의료 현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위한다고 해서 정확한 의학적 판단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좋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자신의 선입견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객관성이 환자를 위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난 활동에서 말했던 것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역시 환자를 위한 전문적 사랑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안: 저는 사랑이 훈련될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은 상대를 알려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은 환자를 만나

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환자를 병명으로만 부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어떤 점을 가장 불안해하는지 묻거나,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작은 행동도 환자를 존중하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은 거창한 감정보다는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4. 의료 현장에서 적용해본 사랑의 네 요소

우리는 프롬이 말한 사랑의 네 요소를 의료 현장에 적용해보며 정리하였다.

첫째, 보호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가 말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라고 보았다. 환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살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책임은 환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려는 태도이다. 다만 책임은 환자의 삶 전체를 대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설명, 판단, 돌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고 정리하였다.

셋째, 존중은 환자를 수동적인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환자도 자기 삶의 맥락과 선택권을 가진 존재이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가치관과 두려움, 선택을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

넷째, 지식은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뿐 아니라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한다. 환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베푸는 친절은 때로는 일방적인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알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5. 이번 활동의 결론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향연』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의 이상이 『사랑의 기술』을 통해 더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연』이 사랑을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으로 보여주었다면, 『사랑의 기술』은 그 힘이 실제 삶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특히 우리 팀은 사랑을 의료인의 태도와 연결해 생각해보았다. 환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환자의 고통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가 겪는 고통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려는 태도에 가깝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환자를 오래도록 진심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자신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결국 『사랑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능동적 역량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활동은 앞으로 『타인의 고통』을 읽으며 타인의 아픔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연결점이 될 것이다.

### 활동 자료

팀원들은 『사랑의 기술』에서 인상 깊었던 개념을 중심으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사랑의 네 요소를 의료 현장에 적용한 내용을 발표 자료로 정리하였다.

## 『사랑의 기술』을 통해 생각해본 사랑의 능동성과 의료인의 실천적 태도

공예모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 2026.04.15 |  
도원글로벌스쿨 강의실



## 오늘의 질문

사랑이 기술이라면, 의료인의 공감과 존중도 훈련될 수 있을까?

## 지난 활동에서 이어지는 질문



『향연』  
사랑은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



공감과 객관성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전 문적 판단을 잃지 않기



3회차 북클럽  
사랑을 훈련 가능한 태도와 실천으로 보기

## 오늘의 책: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문제의식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다.

회의 방식

인상 깊은 개념을 미래 의료인의 태도와 연결해 발제

핵심 키워드

능동성 · 보호 · 책임 · 존중 · 지식 · 자기 사랑 · 훈련



## 핵심 개념: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다

- 01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 02 좋은 마음만으로 충분인가? 태도 점검과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 03 환자를 대하는 따뜻함도 계속 돌아보아야 할 능력이다.

## 사랑의 4요소: 의료 현장에 적용

보호 · 책임 · 존중 · 지식

보호: 불안까지 살피기  
책임: 실명·판단·돌봄 회피하지 않기  
존중: 삶의 맥락과 선택권 보기  
지식: 환자의 상황을 알려는 노력



(토론 자료 사진)

## 토론:

## 사랑의 역량은 훈련 될 수 있는가



찬성

끝까지 듣기,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부족함을 돌아보기



경계

무조건적 감정 노동으로 흐르면 죄책감과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회의 정리

사랑은 순간 감정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능동적 역량이다.  
다음, 사랑의 기술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토론하기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4)

북클럽 팀명	공여모					
일시/장소	일시	2026.04.22. 18:00~20:00			장소	도헌글로벌스쿨 강의실
참여 인원	학과	*	학번	*	이름	류*연
	학과	*	학번	*	이름	안*연
	학과	*	학번	*	이름	유*주
	학과	*	학번	*	이름	정*민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유*주 (서명)	
도서	도서명	사랑의 기술			저자	에리히 프롬
	출판사	문예출판사	출판연도	2019	번역자	황문수
오늘의 북클럽 주제	현대사회 속 사랑의 한계와 의료인의 공감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이번 4회차 활동에서는 『사랑의 기술』에서 에리히 프롬이 제시한 사랑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랑과 공감이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지난 활동에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과 성찰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동적 실천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이번 활동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실제 현실의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흔들리거나, 혹은 소진될 수 있는지 생각을 확장하였다.</p> <p>특히 현대사회가 성과와 효율을 극도로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인간관계 역시 ‘소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이를 의료 현장에도 연결해 보며, 과중한 업무와 시간 제한 속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끝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해보았다. 또한 반복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의료인이 겪게 될 감정적 소진과 번아웃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았다.</p> <p>마지막으로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공감의 한계를 다룬 영상 및 자료를 함께 시청한 후 “좋은 의료인은 어디까지 환자에게 공감해야 하는가”, “효율성과 인간다움은 양립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p>						
<b>활동 결과</b>						
<p><b>1. 현대사회 구조 속 사랑의 한계</b></p> <p>이번 시간에는 『사랑의 기술』에서 에리히 프롬이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부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에리히 프롬은 이 책에서,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인간관계가 점차 소비와 교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 역시 서로를 하나의 '상품'처럼 평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주목하며 우리는 오늘날의 인간관계 역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조건과 효율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p> <p>안*연: 저는 프롬이 요즘 세상에서 사랑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사회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을 읽고 생각해보니, 확실히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도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짧은 시간 동안 상대를 다 판단하려고 하거나 관계를 소비하듯 맺는 경우도 많다고 느껴집니다.</p> <p>유*주: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인스타 같은 SNS에서는 사람의 내면보다 짧고 자극적인 모습, 보여지는 좋은 모습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향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인간을 더 높은 가치로 이끄</p>						

는 과정이라면, 지금 사회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연: 저는 사람들이 점점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어요. 상대를 오래 보며 이해하려 하기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프롬이 말한 사랑의 훈련이나 인내가 현대사회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라기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아무 노력 없이 깊은 관계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 2. 다큐멘터리 ‘The Waiting Room’을 통해 바라본 의료 현장의 현실: 공감과 변아웃 사이의 딜레마

앞서 우리는 현대사회가 인간관계와 감정마저 효율과 소비의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랑과 공감의 문제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의료인의 감정적 소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The Waiting Room'을 함께 시청하였다. 영상 속 의료진들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고 있었고, 환자들 역시 단순한 질병뿐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 삶의 문제까지 함께 안고 병원에 와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료 현장에서 이상적인 공감과 현실적 한계 사이에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안: 이 다큐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환자 n번’라는 이름이나 병명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각자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 불안 같은 삶의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더라고요.

유: 맞아요. 저도 환자들이 이 'waiting room' 안에서 단순히 치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각자 삶의 불안과 외로움까지 함께 견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료진 역시 바쁘고 지친 상태라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류: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이 의료 시스템 자체의 한계도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이 상황은 의료인 개인이 냉정하거나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촉박한 시간과 업무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환경 자체가 의료인을 지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사랑과 공감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 맞아요. 그래서 ‘좋은 의료인’이라는 게 단순히 계속 친절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함부로, 또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특히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는데, 바로 다음 환자를 봐야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았고,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는 인간적인 공감과 효율 추구 사이의 충돌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그치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의료인의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단순한 ‘업무’로만 바라보게 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환자의 감정을 전부 끌어안을 수는 없고 또 그러지도 못하겠지만, 적어도 환자를 병명이나 숫자로만 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끝까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기술』에서도 사랑은 상대를 알려고 ‘노력’하는 태도라고 했잖아요. 의료인에게도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의료인이라는 게 모든 환자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삶과 감정을 단순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현실 속에서 사랑의 실천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 우리는 사회의 구조와 의료 현장의 한계 속에서도, 사랑과 공감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좋은 의료인은 어디까지 환자에게 공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팀원들은 사랑이 거창한 희생이나 완벽한 공감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태도와 반복적인 실천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정: 저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엄청 거창한 감정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나 자신이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 자체가 사랑의 실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의료 현장에서도 모든 환자의 이야기에 완벽하게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거나 불안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작은 행동도 중요한 배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유: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사랑의 기술』에서 프롬이 사랑에 discipline과 patience가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이 계속 떠오릅니다. 결국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치고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계속 상대를 이해하고 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류: 그래서 좋은 의료인이 된다는 건, 결국 이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인간다운 태도, 또 사랑과 공감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4. 이번 활동의 결론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공감이 단순히 개인의 따뜻한 마음과 의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의료 현장처럼 빠른 판단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공간에서는, 환자를 '한 사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일이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식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모든 환자의 고통을 완벽하게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상대를 하나의 대상이나 업무처럼만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사랑이란 이상적인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고민과 선택의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 활동 자료

##### 현대사회 속 사랑의 한계와 의료인의 공감

##### 현대사회 속 사랑 (1)

- 에리히 프롬: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인간관계는 점차 소비와 교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 역시 서로를 하나의 상품처럼 평가하게 되었다"
-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 조건과 효율을 따지기

##### 현대사회 속 사랑 (2)

- ✓ 안: 인간관계도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짧은 시간에 상대를 다 판단하려 하거나 소비하듯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 유: 인스타 같은 SNS만 봐도, 사람의 내면보다는 '보여지는' 짧고 자극적인 모습만 소비된다. '항연'에서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더 높은 가치로 이끈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 현대사회 속 사랑 (2)

- ✓ 류: 공적인 일에서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던 문화가 인간관계에까지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사랑의 기술'에는 사랑의 훈련이나 인내가 어려워졌다.
- ✓ 정: 요즘의 사회에서 사랑이란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아무 노력 없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 현실이다.

## Documentary: The Waiting Room

- <https://www.youtube.com/watch?v=mzlin6OV0LU>



The Waiting Room 1080p HD

## 공감과 번아웃 사이의 딜레마

- 의료 현장의 현실과 의료진의 감정적 소진
- 이상적인 공감 vs 현실적 한계
- 병원 = 환자의 질병 + 삶의 문제까지 함께 안고 오는 공간

## 현실 속에서 사랑의 실천

“사랑과 공감은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가능하다.”

- 정: 사랑은 엄청나게 거창한 감정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이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가 사랑의 실천이 된다.
- 안: 의료 현장에서 모든 환자의 이야기에 완벽하게 공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행동(환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불안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도 중요한 배려가 될 수 있다.

## 현실 속에서 사랑의 실천

“사랑과 공감은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가능하다.”

- 유: 프롬이 사랑에 ‘discipline’과 ‘patience’가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이 중요하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지 않고, 지치고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상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 류: 결국 ‘좋은 의료인’이란,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태도와 사랑과 공감을 위한 실천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5)

북클럽 팀명	공여모					
일시/장소	일시	2026.05.01 13:00~15:00			장소	학교 내 카페
참여 인원	학과	*	학번	*	이름	류*연
	학과	*	학번	*	이름	안*연
	학과	*	학번	*	이름	유*주
	학과	*	학번	*	이름	정*민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유*주 (서명)	
도서	도서명	타인의 고통			저자	수전 손택
	출판사	이후	출판연도	2004	번역자	이재원
오늘의 북클럽 주제	현대 사회의 고통 소비 방식에 대한 비판과 환자의 아픔에 응답하는 실천적 아가페 정립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이번 5회차 미팅에서는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정독하고, 현대 매체 속에서 타인의 비극이 단순히 이미지나 구경거리로 소비되는 방식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 마비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멀리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타인의 불행을 관조하며 느끼는 일시적 연민이 가진 기만성을 검토하고, 고통받는 주체와 나 자신의 편안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p> <p>나아가 질병과 신체 비극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고통을 객관적인 차트나 데이터로만 바라보는 방관자적 시선에서 벗어나 실천적인 책임감을 바탕으로 환자의 주관적인 서사에 연대하는 아가페적 시선이란 무엇인지 팀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p>						
<b>활동 결과</b>						
<p><b>1. 고통의 시각적 소비와 현대 사회의 정서적 마비</b></p> <p>이번 활동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비극이 자극적인 이미지로 노출되고 소모되는 고통의 ‘시각적 소비’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중이 불행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자극에 무뎠어지고 정서적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저자의 비평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인간 소외를 어떻게 심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의료 현장에 대입하여, 환자의 아픔이 단지 임상 지표나 영상 의학적 자료라는 시각적 정보로만 소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감각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p> <p>안*연: 저도 평소에 SNS를 하다가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접할 때가 많은데요. 솔직히 방에 누워서 폰 화면으로 그런 비극들을 보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시각적인 자극에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진짜 고통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서적인 장벽이 생겨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았어요.</p> <p>유*주: 맞아요, 저도 **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 미팅 때 우리가 나눴던 존재와 현상의 개념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존재론적 실체는 평소에 무심히 망각하고 살다가, 매체에서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현상학적 이미지에만 잠깐 눈물 흘리고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대중이 진짜 고통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이유를 제 평소 미디어 소비 습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p> <p>류*연: 저도 수업이나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질병 통계 자료를 접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공감되네요.</p>						

텍스트로 정리된 질병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수치 뒤에 있는 환자가 겪을 주관적인 아픔보다는 단지 학습해야되는 데이터로만 그 상황을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래에 환자를 대할 때도 이렇게 텍스트나 정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의료적 타성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식적으로 경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민: 다들 비슷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기초 학문을 배울 때, 당장 시험을 치기 위해 과학적 정의나 지식들을 외우는 데만 급급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생명 현상을 다루는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정작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서사는 지우고 교과서 속 지식으로만 객관화해서 바라보던 무감각함을 깨달았어요. 비극이나 아픔을 다룬 텍스트에 익숙해질수록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 장벽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북클럽을 통해 인문학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이유도 결국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 기만적 연민과 관조적 특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번에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며 느끼는 연민의 감정이 내포한 기만성과 안전한 거리에서 비극을 관람하는 관조적 특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슬퍼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스스로를 선하다고 착각하는 도덕적 위안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고, 우리가 누리는 안락함이 누군가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과관계를 질문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의료인이 갖춰야 할 동정 너머의 윤리적 연대와 실천적 책임감의 본질에 대해 팀원 간 활발한 상호 토론을 전개하였다.

안: 책을 읽으면서 ‘연민은 기만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비극을 보면서 슬퍼거나 안타까워할 때,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꽤 괜찮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위안을 얻잖아요. 그런데 손택은 그 감정이 사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방관자의 비겁한 면죄부일 수 있다고 꼬집더라고요.

유: 저도 그 부분에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순수한 슬픔이라고 믿었던 연민의 이면에는 사실 ‘나는 저 불행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 즉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하는 관조적 특권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행위 자체로 제 도덕적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류: 맞아요. 손택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과 평화가 혹시 저들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집요하게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의료적 혜택들이 지구 반대편이나 우리 사회 소외계층 누군가의 희생과 결핍 위에서 유지되는 건 아닌지 인문학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환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의료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다짐이 은연중에 ‘불쌍한 처지에 놓인 환자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시혜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만약 의사가 본인은 치료자라는 안전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관조적 특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자를 바라본다면, 그 공감은 기만일 뿐이니까요.

유: \*\*님 의견에 정말 동의해요. 저희가 첫 미팅 때 다뤘던 향연에서 파이드로스가 말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던지는 능동적인 윤리적 행동이었잖아요. 반면에 손택이 비판한 연민은 안전한 장막 뒤에 숨어서 감정만 소모하는 수동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결국 실천적 책임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대생들이 외치는 공감이라는 가치도 한낱 자기만족을 위한 세련된 연민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안: \*\*님 말을 들으니 생각이 더 명확해지네요. 결국 우리가 환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응답하려면, 내가 가진 지위에서 내려와 환자와 같은 인간으로서 윤리적으로 연대하려는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보다, 그 고통을 유발하는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을 같이 보려고 고민하는 태도가 진짜 저희 팀이 지향해야 할 아가페적 시선이라는 결론에 닿게 돼요.

## 3. 예비 의료인으로서 실천적 책임과 아가페적 시선 정립

이번 단계에선 수전 손택이 제기한 방관자적 시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의료인이 갖춰야 할 실

천적 책임감과 아가페적 시선의 구체적인 정의를 도출하였다. 환자의 비극을 단순한 객관적 지표나 관조의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삶에 윤리적으로 개입하여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의학적 지식의 지향점이 결국 인간 존엄성 회복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팀원 간의 종합적 의견을 정립하였다.

정: 이번 학기 내내 저희가 고민해 온 ‘공감하는 의료인’의 실체가 이 실천적 책임감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택의 비판처럼 환자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의해야 할 의료인의 실천적 책임은 환자가 처한 고통의 주관적 맥락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가 가진 의학적 역량을 다해 그 고통을 경감시키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다짐이어야 합니다.

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환자를 치료할 순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교과서적인 질병 정의나 학업적 데이터를 외우는 와중에도, 이 질병을 겪을 인간의 구체적인 서사를 상상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타자화하지 않고 내 학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태도 자체가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초의 실천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안: 아가페적 시선이란 시혜적인 동정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와 환자가 인간이라는 보편적 지층 위에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치료자라는 안전한 지위에서 오는 특권을 내려놓고,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상실한 삶의 온전함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무조건적인 존중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 \*\*님이 정의한 아가페적 시선이 참 와닿아요. 매일 수많은 환자의 비극을 마주해야 하는 임상 현장에서, 매번 감정적 불꽃을 터뜨리며 공감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소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가페적 시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책임감을 내면화한다면,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궤도로 환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 맞아요. 일시적 감정 소모가 아니라 원칙과 책임에 기반한 사랑이어야 지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요. 환자를 숫자로 단순화하려는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정립한 아가페적 시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윤리적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 결국 의학적 숙련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인간의 고통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는 서사적 공감 능력이라는 점을 이번 토론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4. 이번 활동의 결론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팀은 타인의 비극을 안전한 거리에서 시각 정보로 소비하며 정서적 마비에 이르는 매체의 한계를 성찰하고, 이를 학업 과정에서 질병을 단순한 학습 데이터로만 접하던 우리 자신의 무감각함과 연결하여 반성하였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동정심은 관조적 특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의 결핍과 나의 안락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질문하며 대등하게 연대하는 실천적 책임감을 예비 의료인의 필수 자질로 정립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출한 아가페적 시선은 감정을 무제한으로 소모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원칙 위에서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의미한다. 환자를 숫자로 단순화하려는 의료적 타성을 경계하고, 환자의 주관적 서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는 공감 능력이 의학적 숙련도를 완성하는 단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 활동 자료

##### '타인의 고통' 속 수전 손택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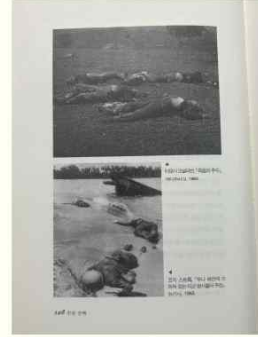
- "타인의 비극적인 이미지를 반복해서 접하면 인간의 지각은 자극에 무뎠다. 결국 **고통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서 타인의 아픔에 실질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 마비 상태**에 이른다."
- "사진은 순간의 충격을 줄 뿐 사건의 구체적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미지가 주는 시각적 자극에 매몰되지 않고, 비극을 유발한 구체적 **서사와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타인의 고통' 속 수전 손택의 메시지

- "안전한 장소에서 불행한 사진을 보며 슬퍼하는 연민은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행동이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방관자의 도덕적 위안**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이 불행에 빠지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안전한 거리에서 비극을 관람하는 특권을 확인하는 **기만적 감정**이다."

## '타인의 고통' 속 수전 손택의 메시지

-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타자화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락함이 고통받는 이들의 희생이나 결핍과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 고통의 시각적 소비와 현대사회 정서적 마비

안: 비극을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SNS 콘텐츠 소비 습관을 반성하고 정서적 장벽이 주는 무감각함을 돌아보았다.

유: 타인의 고통이라는 존재론적 실체는 망각하고, 매체 속 자극적인 현상학적 이미지에만 눈을 흘리는 현대 사회를 돌아보았다.

류: 질병 너머의 환자 모습을 잊고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정: 고통에 익숙해져 무감각해지는 장벽을 이겨내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만적 연민과 관조적 특권 성찰

안: 연민은 기만적 감정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고, 환자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윤리적으로 연대하려는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유: 연민의 이면에 관조적 특권이 숨어 있음을 느끼고 반성하였으며, 실천적 책임감이 동반된 사랑이 필수적이다.

류: 타인의 고통이 나의 안락함과 어떤 인과관계인지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정: 과거 시혜적 태도에만 머물러있었던 걸 반성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 의료인으로서 실천적 책임과 아가페적 시선 정립

정: 의료인의 실천적 책임은 고통의 주관적 맥락을 인지하고 행하는 구체적 행동 다짐이다.

류: 질병을 겪을 환자의 구체적 서사를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고통을 타자화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시혜적 동정심을 배제하고 환자와 내가 보편적 지층 위에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시선이 아가페적 시선이다.

유: 아가페적 시선을 바탕으로 실천적 책임감을 내면화하면 환자를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6)

북클럽 팀명	공여모					
일시/장소	일시	2026.05.07 19:00~20:30			장소	학교 내 카페
참여 인원	학과	*	학번	*	이름	류*연
	학과	*	학번	*	이름	안*연
	학과	*	학번	*	이름	유*주
	학과	*	학번	*	이름	정*민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유*주 (서명)	
도서	도서명	타인의 고통			저자	수전 손택
	출판사	이후	출판연도	2004	번역자	이재원
오늘의 북클럽 주제	의료인이 마주하는 '이해 불가능한 고통'과 의식적 노력으로서의 인지적 공감 재정의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지난 5회차 토론에서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통해 안전한 위치에서 타인의 비극을 관조하는 일시적 연민의 기만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것에 이어, 이번 6회차 미팅에서는 이를 예비 의료인의 임상적 윤리로 확장하는 심화 토론을 진행하였다. 단순한 정서적 동요나 감상주의적 연민을 넘어선 '의식적 노력으로서의 공감'이 왜 의료인에게 윤리적 의무이자 기술인지를 논의하였다.</p> <p>이 과정에서 김초엽·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 레슬리 제이미슨의 《공감 연습(The Empathy Exams)》, 브래디 미카코의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등 의료인문학 텍스트를 연계 분석하였다. 나아가 쉽게 동정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언 매규언의 《칠드런 액트(The Children Act)》와 권여선의 단편 소설 〈봄밤〉을 참고하여 고통의 위계화 및 의료적 온정주의에 대한 다층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p>						
<b>활동 결과</b>						
<p><b>1. 타인의 고통은 정말 이해 가능한가 - 정서적 공감 대 인지적 공감</b></p> <p>우리는 의료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당신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라는 표현이 지닌 양면성을 짚어보고, 동일한 신체적·사회적 경험이 결여된 상태에서 상상력이라는 의식적 노력이 어떻게 공감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p> <p>유*주: 지난 시간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며 감상주의적 연민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임상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무심코 던지는 "당신 마음 다 이해해요"라는 말이 어떨 때는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어떨 때는 철저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환자의 고통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고립된 영역인데, 의사라는 안전한 지위에서 그것을 '다 안다'고 쉽게 재단해 버리는 순간 환자의 진짜 고통은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요.</p> <p>정*민: 심리학과 의료인문학에서 다루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의 구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정서적 동요는 동일한 경험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히거나 오히려 의사의 공감 피로를 유발하지만, 인지적 공감은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따라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적으로 상상해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핵심이 되는 것 아닐까요.</p> <p>류*연: 김초엽·김원영 작가의 《사이보그가 되다》에서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주체들이 경험하는 삶의 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도 공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어요. 육체와 질병의</p>						

경험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신, 삶의 경험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다르고, 그렇게 서로가 가진 고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육체와 정신을 가진 개인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나와 다른 타인의 삶을 애써 상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연: 저도 동의합니다. '연결되기 위해 애써 상상하는 능력'을 강조하셨는데요, 의료인에게 필요한 공감 역시 환자와 똑같은 질병을 앓아본 적은 없더라도 그 환자가 가진 세계의 틈새를 애써 메워가며 상상하는 윤리적 책임이어야 할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그들의 삶은 어떨까 관심 가지는 것, 타인과 대화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며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의료인이 되기 전 학생 위치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고요.

## 2. 공감은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이성적 훈련이자 기술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레슬리 제이미슨의 에세이를 통해 매뉴얼화된 공감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질문하기'의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고, 공감이 타고난 성품이 아닌 훈련해야 할 기술이자 의무임을 토론하였다.

안: 레슬리 제이미슨의 《공감 연습》이라는 책에서는 저자가 의대생들의 진료, 면담 실습을 돕는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로 일했던 일화가 나와요. 의대생들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공감적 문구를 기계적으로 읊을 때 환자는 전혀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오히려 제이미슨이 제안한 "그게 어떤 느낌인가요?",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와 같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공감에 가닿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에 가닿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공감을 위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류: 저희가 몇 년 후에 보게 될 국가고시 실기 시험에서도 시험을 도와주는 환자 역할의 배우들을 만나게 된다고 들었어요.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배님과 얼마 전에 또 대화했었는데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환자에게 공감하는 태도, 환자의 정서를 헤아리고 소통하는 능력도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정말 있어 보입니다.

유: 저도 이러한 질문하기의 태도가 인지적 공감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공감에 대해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는데요, 브래디 미카코의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예요. 저자는 여기에서 Empathy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미카코가 말한 공감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신발이 내 발에 맞지 않아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인의 신발을 신어본 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의료인에게도 이러한 이성적 노력이 쉽진 않겠지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맞아요. 진료실 안에서 환자와 소통하면서 그 환자의 질병이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환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 속에서 그 질병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불편함을 주게 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역추적하고 지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것도 기술적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의료진 개인만으로는 안 되고, 충분한 진료 시간과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갖춰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의료 시스템도 의료진이 공감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해보니까 공감은 선천적인 착한 마음씨나 능력이 아니라, 의사로서 매일 갈고닦아야 하는 훈련 가능한 기술이자 윤리적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매일 환자들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가 너무 많거나 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 없어 충분히 소통할 수 없는 의료 현실, 또 불충분한 시간과 감정 노동으로 번아웃되기도 하는 의료진들의 어려운 근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걸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 3. 쉽게 동정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공감하기 - 선별적 공감과 의료 온정주의 극복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해, 중독, 치료 거부 등 의료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하는 환자들을 마주했을 때의 태도를 논하며, '고통의 위계화'와 의료 온정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류: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있고, 임상 현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상황의 환자를 마주할 수 있을 건데, 이 중에는 쉽게 동정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망가졌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는 환자나 종교적 신념으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의 사례 등은 모두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언 매규언의 소설 《칠드런 액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판사가 수혈을 거부하는 소년의 사건을 두고 고뇌하는 내용의 책인데요,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환자가 등장해요. 의료인이 환자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어디까지 공감하고 개입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 저는 의사가 "내가 의학적으로 맞으니 내 말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의료적 온정주의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공감의 핵심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세계를 살고 있기에 저런 선택을 하는가'를 묻고 여기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학 작품으로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 저도 권여선의 소설 〈봄밤〉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 속 알코올 의존증 주인공은 언뜻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제삼자의 시선으로 이를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라 재단하며 공감을 거두는 행위는 너무나 쉽고, 동시에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서사를 읽어보려고 이해하는 데에 공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저는 '선별적 공감'과 '고통의 위계화'가 병원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고 순응적인 환자에게는 쉽게 공감하면서, 중독이나 자해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고통과 질병은 사람이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자기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도 만들어요. 타인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무결한 환자만 존재하지도 않고요. 고통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환자의 배경이 나와 완전히 달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저 환자가 받을 دن고 서 있는 세계의 어떠한 '논리'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이게 의료인이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공감 형태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정: 저도 환자의 서사를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공감이 의료인의 핵심 윤리라면, 공감의 결과가 때로는 의료적으로 '더 나쁜 선택'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칠드런 액트》에서 판사가 수혈을 거부하는 소년의 신앙과 자율성에 완전히 공감하고 그 선택을 존중했다면, 그 아이는 사망했을 거예요. 공감이 환자 자율성의 무조건적 수용으로 환원될 때, 의료인은 더 이상 의학적 선의를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공감하는 청취자가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유: 맞는 비판인 것 같아요. 공감 없는 의료적 판단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의료인의 역할은 단지 환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해하더라도 때로는 환자에게 더 좋은 의학적 결과를 위해 설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명윤리의 4원칙-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 금지, 정의-이 충돌하는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 의료 판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료 판단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자를 충분히 공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임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공감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 4. 이번 활동의 결론

이번 모임에서 우리는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과 고통 앞에서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공감의 본질을 정립하고, 동시에 공감의 한계와 그것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인의 공감은 수동적인 감정적 동요나 시혜적 연민이 아닌, 타인의 '이해 불가능성'을 겸허히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서사를 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식적 노동이자 훈련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레슬리 제이미슨이 강조한 '주체적인 질문하기'와 브레이디 미카코의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애펬시(empathy)' 등을 참고해 의료진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키워 가야할 직업적 의무에 동의하였다.

나아가 공감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인식도 필요하다. 한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진료 구조, 과부하된 업무로 인한 공감 피로, 감정 노동을 지지하는 장치 없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공감의 책임 등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공감은 소진되기 쉽고 지속 불가능한 덕목으로 남는다. 따라서 의료인 개인이 공감을 윤리적 역량으로 키워가는 것과 함께, 의료진이 실제로 공감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적정 진료 시간 보장, 번아웃 예방 지원, 환자 중심 소통 문화-을 구축하는 의료 시스템의 책임도 동등하게 요구된다. 공감하는 의료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개인 윤리를 넘어 사회적·제도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의료 개혁의 과제임을 6회차 미팅을 통해 확인하였다.

# 활동 자료

주요 참고 도서 ①

## 메인 텍스트

### 《타인의 고통》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수전 손택 (Susan Sontag) | 이후, 2004 | 역: 이재환

전쟁·재난 사진이 촉발하는 일시적 연민의 기만성을 날카롭게 분석한 에세이. '안전한 위치에서 타인의 비극을 관조하는 행위가 어떻게 정치적 무관심으로 귀결되는지'를 규명한다. 5 페이지에서 감상주의적 연민의 관계를 짚은 출발점 텍스트로, 6 회차 토론에서는 이를 에피타피움의 임상 윤리로 확장하였다.

핵심 질문: "안전한 자리에서 타인의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토론 흐름 요약

## 3 단계 심화 구조

- 타인의 고통은 정말 이해 가능한가**  
 종사적 공감 (Affective Empathy) vs.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당신 마음 다 이해해요"의 양면성 — 위로인가 폭력인가. 이해 불가능성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의식적 공감의 윤리적 근거를 논함.
- 공감은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이성적 훈련이자 기술이다**  
 불안해하기 · 약속하기 · 지적 채우기  
 제이미슨의 '주체적 질문하기', 미카코의 '렘바시' 개념을 임상 기술로 정의. 공감은 선천적 심성이 아닌 훈련 가능한 직업적 의무임을 도출.
- 쉽게 동정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공감하기**  
 선별적 공감 · 고통의 위계화 · 의문적 은광주의 (Paternalism) 극복  
 중독 · 자해 · 치료 거부 환자 앞에서 태도. 《칠드런 액트》 사례를 통해 자율성 존중과 선행 의무 충돌 시 '공감이 의료 판단을 대체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

주요 참고 도서 ②

## 연계 분석 텍스트 — 공감의 이론과 실천

### 《공감 연습》 The Empathy Exams

레슬리 제이미슨 (Leslie Jamison) | 2014

임상 심기 학습 표준화 장치 (SP) 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하기'를 공감의 핵심 기술로 제안. 체크리스트식 공감의 양상을 비판.

### 《사이보그가 되다》

김주엽 · 김원영 | 사계절, 2021

다양한 장애 경험을 가진 주체들의 서사를 통해, 개인의 일과 삶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지 탐색. '나와 다른 삶을 예외' 상상의 '일'의 중요성을 강조.

###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브레이디 비카코 | 다다서재, 2022

렘바시 (Empathy)를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이성적 훈련 능력'으로 정의. '동정 (Sympathy)'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공감의 지적 훈련 가능성을 역설.

### 《칠드런 액트》 The Children Act

이언 배리먼 | 한겨레출판, 2015

여초와의 중언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17세 소년의 시간. 판사 (Fiona Maye)가 병원을 방문해 소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율성 vs. 선행 의무의 충돌을 절묘하게 다룸.

6 회차 토론 결론

## 의료인의 공감 — 의식적 노동이자 훈련 가능한 기술

### 공감의 본질

타인의 이해 불가능성을 경계하여 인정하는 태도 출발, 환자 서사를 지적으로 재구성하는 의식적 노동

### 임상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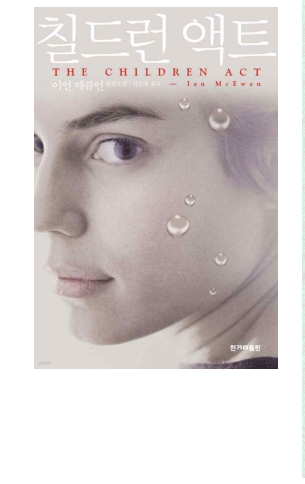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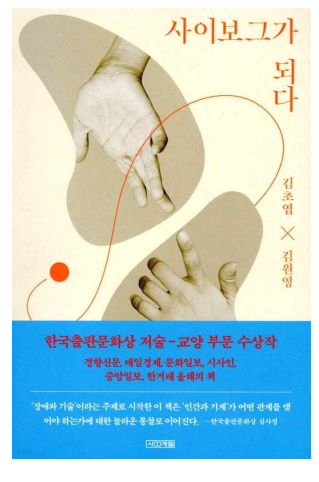
레슬리 제이미슨의 '주체적 질문하기' + 브레이디 미카코의 '렘바시' = 훈련 가능한 임상 기술

### 윤리적 긴장

공감 ≠ 자율성의 무조건 수용 — 선행 의무와 충돌 시 공감은 더 정밀한 의료 판단의 토대여야 함

### 구조적 조건

공감하는 의료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적정 진료 시간 · 빈아웃 예방) 을 만드는 의료 시스템 개혁도 필요



## 2026-1학기 25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7)

북클럽 팀명	공여모					
일시/장소	일시	2026.05.14 16:00~18:30			장소	도현글로벌스쿨
참여 인원	학과	*	학번	*	이름	류*연
	학과	*	학번	*	이름	안*연
	학과	*	학번	*	이름	유*주
	학과	*	학번	*	이름	정*민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유*주 (서명)	
도서	도서명	향연, 사랑의 기술, 타인의 고통			저자	플라톤, 에리히 프롬, 수전 손택
	출판사	문학동네, 문예출판사, 이후	출판연도	2004 등	번역자	강철웅 등
오늘의 북클럽 주제	세 권의 도서를 통해 정리한 사랑의 본질과 공감하는 의료인의 조건					
<b>활동 내용 &amp; 방법</b>						
<p>이번 7회차 활동에서는 지금까지 함께 읽은 세 권의 도서, 플라톤의 『향연』,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며 북클럽 활동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철학, 심리, 비평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통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호감이 아니라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자, 지속적인 훈련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실천이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태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p> <p>먼저 팀원들은 각 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한 개념을 다시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팀이 새롭게 정의한 사랑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이후 북클럽 활동 전후로 각자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유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공감의 방식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1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활동 기록과 운영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고, 촬영해 두었던 활동 영상과 사진 자료를 선별해서 릴스 제작 방향을 정리하였다.</p>						
<b>활동 결과</b>						
<p><b>1. 세 권의 도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정리</b></p> <p>우리는 먼저 세 권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개념들을 정리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연』을 통해서는 사랑이 인간을 더 높은 가치와 성숙한 삶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윤리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li> <li>-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이 우연히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능동적 역량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프롬이 제시한 보호, 책임, 존중, 지식의 네 요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환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고통을 감정적으로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의 필요에 성실하게 응답하려는 태도에 가까웠다.</li> </ul>						

- 『타인의 고통』에서는 타인의 아픔을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하거나 일시적인 연민으로 소비하는 태도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우리는 환자의 질병과 고통을 단순한 차트, 검사 결과, 통계 자료로만 바라보는 의료적 무감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그 고통이 놓인 삶의 맥락을 질문하고 책임감 있게 응답하려는 실천적 태도였다.

이를 종합하여 우리 공여모 팀은 이번 학기 북클럽의 핵심 키워드를 동력, 역량, 책임, 인지적 공감, 아가페적 시선, 지속 가능한 돌봄으로 정리하였다.

## 2. 우리 팀이 새롭게 정의한 사랑의 본질

이번 활동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세 권의 책을 거친 뒤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활동 초반에 우리는 사랑을 주로 상대를 좋아하고 아끼는 감정, 혹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활동이 이어질수록 사랑은 감정 그 자체를 뜻하기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유\*주: 저는 사랑이란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와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권의 책을 읽고 나니, 사랑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어떤 실천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지식과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연: 저는 사랑이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대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쉽게 단정하거나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대신, 무엇이 가장 힘든지 질문하고 그 사람의 서사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상대를 알아가려는 능동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류\*연: 『향연』을 처음 읽을 때는 사랑이 인간을 고양시키는 힘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사랑의 기술』과 『타인의 고통』을 거치면서, 그 힘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려면 원칙과 훈련,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료인에게 사랑은 환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전문가가 되려는 윤리적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하나의 업무나 숫자로만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사랑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느꼈습니다.

정\*민: 저는 처음에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너무 깊이 공감하면 오히려 객관성을 잃거나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공감이 반드시 감정적 몰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타인의 서사를 돌아보려는 이성적 훈련이자,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우리 팀은 사랑의 본질을 "타인의 삶과 고통을 함부로 단순화하지 않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이해하고 응답하려는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 3. 북클럽 활동 전후 생각의 변화

이번 활동에서는 북클럽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뒤 팀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공유하였다. 활동 전에는 사랑을 주로 개인적인 감정, 친밀한 관계, 혹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치며 사랑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의료인의 직업적 태도와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 팀은 공감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하였다. 처음에는 공감을 환자의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감정적 능력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공감을 더 복합적인 역량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환자의 고통을 완전히 대신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자의 말을 듣고 질문하며 그가 처한 세계를 지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은 훈련될 수 있다. 또한 공감은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진료 시간과 의료진의 번아웃을 막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정리하였다.

결국 북클럽 활동을 통해 우리는 좋은 의료인이란 언제나 완벽하게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를 단순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환자를 질병의 사례나 검사 수치로만 보지 않고, 고통의 배경과 삶의 맥락을 가진 한 사람으로 대하려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인의 모습이라고 결론 내렸다.

#### 4. 운영 보고서 검토와 릴스 제작

마지막 활동에서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작성한 운영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였다. 각 회차의 주제와 활동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도서별 핵심 개념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팀원들의 토론 내용과 결론이 활동 흐름에 맞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향연』에서 시작된 사랑의 철학적 의미가 『사랑의 기술』의 실천적 태도로 확장되고, 다시 『타인의 고통』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와 공감의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이 드러나도록 전체 보고서의 연결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활동 중 릴스 제작에 사용할 자료를 선별하였다. 릴스는 북클럽 활동의 전체 흐름이 짧은 영상 안에서 드러나도록 구성하기로 하였다. 릴스 제작 보고서의 초안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5. 이번 활동의 결론

이번 7회차 활동은 세 권의 도서를 읽으며 이어온 논의를 종합하고, 우리 팀이 한 학기 동안 새롭게 이해하게 된 사랑의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향연』은 사랑이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었고, 『사랑의 기술』은 사랑이 반복적인 훈련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능동적 실천임을 알려주었다. 『타인의 고통』은 그 사랑이 타인의 아픔 앞에서 감상적 연민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팀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 공감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고통을 쉽게 단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이자 책임 있는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예비 의료인으로서 우리는 환자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한계 때문에 더 질문하고 더 상상하며 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번 북클럽 활동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감이 의학적 전문성과 분리된 부가적인 덕목이 아니라, 환자를 동일한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의 핵심 역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앞으로 의료인이 되었을 때도 환자를 숫자나 질병명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그가 살아온 삶의 맥락과 고통의 서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활동 자료

(단체 사진)